

뼈아픈 근대사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13일 창작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 첫 선

소리극 '정읍 사는 착한 여인' (주호중 연출, 사성구 작)이 오는 13일과 14일 오후 4시 정읍사 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정읍시립국악단이 아삼차게 창작·기획한 '정읍 사는 착한 여인'은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모티브로 하여 분노와 울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뼈아픈 근대사를 기발한 상상력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풀어낸 대서사시다. 인간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울음과 분노의 샘이 어릴 적 우연한 사고로 막혀버려 눈물을 흘리지도 분노를 표출하지도 못하는 여인 정월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목격한 메시지와 실 새 없이 터지는 해학적 웃음으로 풀어냈다. 주호중 단장이 연출을, 사성구 중앙대 교수가 대본을, 한승석 중앙대 교수가 작곡을, 박성호 국립국악원 수석악사 안무를 맡아 의기투합했다. '정월' 역은 시립국악단원 김유빈이 맡는다. '정읍의 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주인공 정월(井月)은 4살이던 동학전투 때 일본군이 손 총탄 파편이 머리에 박힌 이후로,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울음이 터지거나 화를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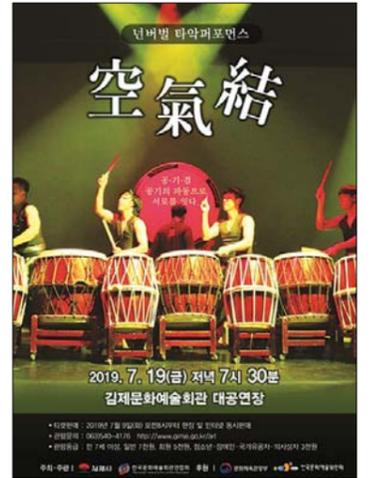
못하는 기이한 착한 여인으로 성장한다. 우리민족의 울분과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던 일제 격동기에 울지도 분노하지도 못하는 바보같이 착한 여인 정월의 그야말로 속 터지는 일생은,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비극을 더 처절하게 부각시키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배꼽 빠지는 풍자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주인공 정월은 다름 아닌 속울음을 삼키고 분노를 삭이며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녀(熊女)처럼 곳곳이 어둠의 세월을 살아 견뎌온 우리 민족에 대한 은유이며 상징이다. 그 지점에서 정월이 달님을 보며 부르는 '정읍 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해방의 노래'이자 '희망가'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을 웃음과 해학이 어우러진 기발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이를 구성한 소리와 화려한 몸짓으로 펼쳐냄으로써 대한민국 창작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공연으로 공연 당일 선착순 입장이다.



공연은 무료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예술신통팀(☎063-539-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두드림, 공기의 파동으로 서로를 잇다'라는 주제로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창의적 계승과 활용을 위해 단소와 생황, 피리, 대금, 해금 등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물론, 북과 드럼, 농악의 군무와 비트박스, 마임 등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무대가 꾸며져 관객의 귀뿐만 아니라 눈까지 사로잡는 공연이 될 것이다. 2019년제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원주문화재단의 공기결 공연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2호 원주매지농악보존회와 공동 제작했다. 관람권 예매는 9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여성인권영화제 개막... 내일까지 15편 무료상영

'제13회 전북여성인권영화제-희허락라(喜, 허락樂)'가 4일부터 6일까지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기념해 개막하는 이번 인권영화제는 여성들의 인권 회복과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다양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며 양성평등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해 오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여성영화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상영일을 하루 더 늘려 총 15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된다. 개막작은 여성폭력 문제들을 담아낸 '해미를 찾아서(감독 허지은·이경호)', '증언(감독 우경희)', '연락처(감독 강지이)' 3편으로, 이 세 작품은 여성이 살아가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제 마지막 날에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와 함께 여성영화제작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 '추차'가 처음으로 스크린을 통해 공개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영화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전북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영화제 마지막 날에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와 함께 여성영화제작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 '추차'가 처음으로 스크린을 통해 공개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영화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전북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태권도와 국악이 어우러진 '태권 더 원' 주말에는 한번 더!

평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주말에는 오후 4시 공연 추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태권도 시범을 통한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2019 태권도원 상설공연인 '태권 더 원'의 공연 횟수를 증가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7월과 8월 자녀의 방학을 맞아 주말과 광복절 등에 가족 단위로 태권도원을 찾을 방문객을 위해 '태권 더 원'의 공연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증가해 운영한다. 이 기간 주말(광복절 포함)에는 기존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공연에 '오후 4시 공연'이 추가된다. '태권 더 원'은 격파와 창작 풍채, 국악 장단을 활용한 타악·사물놀이 등이 결합된 태권타악퍼포먼스로 지난 3월부터 태권도원 T1공연장에서 11시와 14시에 관객을 맞고 있다. 특히, 주말 공연의 경우, 매 공연마다 400여 석의 좌석이 관람객으로 꽉 차는 등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7월과 8월 주말, 공연 횟수를 늘려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상설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했다"라며 "태권도와 국악이 어우러진



태권도원 상설공연인 '태권 더 원'이 공연 횟수를 증가한다.

'태권 더 원'을 관람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한다. 한편, '태권 더 원'은 태권도원 정기 휴관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음식 옛 추억, 이야기로 담아봐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음식 교육 프로그램 추진... 교육생 선착순 모집

음식과 관련한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내 맛깔스러운 이야기로 꾸며보는 전통음식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과거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음식에 대한 추억을 되짚고 이를 음식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전주 맛 이야기'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22일부터 한 달 여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당 한식창의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주음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음식에 대한 옛 기억을 끌어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잊었던 전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8회 차로 구성된 교육은 한국과 전주 음식에 대한 고찰, 맛있는 이야기 작성법(이야기 집필), 이야기를 담아 음식을 연출하는

법(조리,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2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매주 월·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전당 조리체험실(사무방)과 세미나실 또는 교육실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http://www.ktc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교육은 기억 속에만 머물렀던 전주 음식을 글로 옮기는 것은 물론 직접 만들어 보고 스타일링해 사진으로 남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맛깔스러운 전주 음식 이야기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송효철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